

A Relationship Study of Parent Abuse,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Delinquency Victimization and Cyber Delinquency among High School Adolescents

Sun Ah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Cyber University, #320 Jongno Bizwell, 23 Samil-daero 30-gil, Jongno-gu, Seoul, Korea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parent abuse,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delinquency victimization, and cyber delinquency among high school adolescents. This study used the Korea Youth Child Panel Survey (KYCPS) wave 5 data, including 2,091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The results fro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the data revealed that delinquency victimization and social withdrawal had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 cyber delinquency. In addition, parent abuse had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while indirect effects of parent abuse were not found. Based on these results, strategies for preventing and intervening in cyber delinquenc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Key words: parent abuse, cyber delinquency,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adolescen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스마트폰의 사용과 보급률이 청소년 사이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용이 일상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수반되는 것을 볼 수 있다(Grigg, 2010; Tokunaga, 2010).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0-20대는 평균적으로 97% 이상이 매일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은 3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6)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비행문제인데 이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국제적인 위기문제로서 국내외의 사이버비행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Cassidy, *et. al.*, 2013). 심지어 외국에서는 스토킹이나 살인위협 위험까지 사이버비행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Nelson, 2003)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Sun Ah Kim, Tel. +82-2-708-7832, Fax. +82-2-708-7749, e-mail. sunkim@mail.kcu.ac

국내의 경우는 5,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로 사이버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6.6%였고,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56%, 고등학생들은 43.1%가 여러 명이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Lee, *et. al.*, 2015). 또 최근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2명 중 1명꼴로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30%는 피해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ChosunIlbo, 2016). 이런 심각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이버비행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로(Lee & An, 2013)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다(Kim, & Yoon, 2012).

사이버 비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문제행동’을 의미한다. 사이버범죄를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적으로 비행이라 인정되는 정도의 스토킹, 사이버폭언, 음란물 검색이나 중독 및 음란폭력 채팅, 사이버도박, 인터넷게임 중독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Han, 2001). 일반비행도 그렇지만 사이버비행도 범죄에 가담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특별히 학교폭력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강화되면서 학교폭력이 사이버 폭력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나타나(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4) 우리사회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청소년 위기문제이다.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요인들로는 부모와의 관계성,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들을 들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가장 긴장된 관계인 부모의 학대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사이버 비행의 원인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았고(Van den Eijnden, *et. al.*, 2010) 부모학대는 청소년들의 비행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서도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학대가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여 비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이버비행

의 경우에도 비행과는 비슷하지만 특정 문제행동으로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로 부모의 학대가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Dehue, *et. al.*, 2012).

이외에 개인 정서행동요인들에서는 우울, 사회적 위축과 비행피해를 당한 경우가 사이버비행과 관련된 요인들로 드러나는데(Koh & Kim, 2015; Koh & Kim, 2014; Kim, & Yoon, 2012) 이들이 다른 요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상태이다.

우울의 경우, 가정학대피해로 우울이 더욱 증가할 수 있고 사이버 비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수도 있다고 본다(Jwa, 2015).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성도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소년의 사회적인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사이버비행행동의 증가가 예측되었다(Kim, 2013; Lee, *et. al.*, 2015). 청소년의 폭력피해와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성도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로,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경험은 사이버폭력의 피해, 가해, 또는 사이버폭력/오프라인폭력 가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들에 나타나고 있다(Beran & Li, 2007).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해야한다고 주장되고 있다(Kim, 2007; Ka, *et. al.*, 2013).

따라서 이 주요 요인들이 부모의 학대와 관련하여 청소년 사이버비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들의 관계에서 매개관계도 드러나면 관련 변수가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Lee, 2007) 서로간의 구체적인 관계성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데,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린 연령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연구해왔고 더 연령이 높은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종단연구는 적은 편이다(Lee & Lee, 2015).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행동이 성인과 비슷해지는 고등청소년들을 통해 발달에 따른 특성도 살펴보고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우울, 비행피해경험, 사회적 위축, 그리고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해하고자한다. 서로의 관계성을 통해서 고등청소년의 사이버 비행문제를 예방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문제와 관련된 경로를 파악하여 문제행동에 효과적인 개입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부모 학대와 우울, 비행피해경험, 사회적 위축, 그리고 사이버 비행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아래 <Figure 1>은 검증하려고 하는 연구모형이며 각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학대, 우울, 비행피해경험, 사회적 위축이 고등학교 청소년의 사이버가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미한가?
2. 부모학대, 우울, 비행피해경험,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사이버가해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서로의 관계성들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부모학대와 청소년 사이버비행

한창 부모의 따뜻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할 청소년들이 부모의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가 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비행행동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유추해서 비슷한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성에서 그 연

관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있다. 부모의 신체적이나 정신적 학대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이상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07).

청소년의 사이버비행(cyber delinquency)은 인터넷과 관련된 청소년 비행을 의미한다.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2008)은 사이버폭력, 비행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헌·부호·음향·화상이나 영상을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Kim & Yoon(2012)은 사이버폭력 유형을 보다 구체화해서, '타인에게 정신적이나 심리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비난, 욕설, 위협, 따돌림, 유언비어나 괴롭힘 등과 같은 행위'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비행의 발달적인 특성이 청소년의 중·후반기까지 상승한다는 기존 비행에 대한 연구(Park, 2014; Laub & Sampson, 1993)도 특성으로 나타난다. 사이버비행의 특징으로는 학교 밖에서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학교들이 교내 핸드폰사용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Willard, 2006; Smith, *et. al.*, 2008). 이는 학교가 사이버폭력을 다루는 역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 사이버비행 연구에서는 비행피해 집단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이버 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Jeon, *et. al.*, 2015).

부모학대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출생 후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지적·정서적·신체적·행동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져 왔다(Lee & Yoon, 2005; Kim & Yoon, 2013).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연구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Ki, 2011; Kim & Choi, 2012; Lim, 2015).

부모학대와 사이버비행의 관계성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 학대는 우울, 사이버 비행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로 나타났고(Jwa, 2015), 중학생들의 아동학대경험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경험과 부모학대가 상관관계로 나타났다(Lee & Jeong, 2014). 외국연구에서는 부모 학대와 방임이 학교에서 아동들이 비행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Lereya, *et. al.*, 2013), 사이버비행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이버비행을 안하는 아동들에 비해 부모 모니터링, 부모체벌,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이 약했다(Wang, *et. al.*, 2010; Wong, 2010). 사이버 비행과 일반비행과 부모에 대한 연구에서는 방임하는 부모를 가진 경우, 아동이 가장 많이 사이버비행과 일반 비행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Dehue, *et. al.*, 2012) 사이버비행도 일반비행과 마찬가지로 부모학대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고등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적학대가 사이버비행과 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Hebert, *et. al.*, 2016).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 스트레스를 경유해서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변수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타났다(Kim & Cha, 2014). 또 부모학대 초기 값이 사이버비행의 초기 값과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공격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Jeong & Lee, 2015).

2.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과 청소년 사이버비행

청소년의 개인정서 요인 중에서는 주요한 요인들을 보면,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문제행동의 요인으로 드러난다.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성에서도 중요한 유의미한 관계들이 나타나는데, 우울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성을 규명한 Kim(2013)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사이버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사이버비행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사이버비행 가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Lee, 2006), 종단연구에서는 우울의 영향이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장기적인 종단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다(Kong & Lim, 2012). 또 청소년기의 우울은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14). 우울의 특성으로 인해 현실도피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부정적인 정서의 해소를 위해 비행을 저지르거나 불만족을 해결하게 하려한다고 보려는 관점도 있다(Ko & Kim, 2015).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부모 학대가 청소년자녀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우울이 매개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Jwa, 2015).

사회적 위축도 정서적인 개인요인으로서 사이버비행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존연구에서 나타난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우울할수록,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주변과의 애착관계가 약화되고 사이버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Koh & Kim, 2015; Kim, 2013). 고등학교 문제청소년 연구에서는(Lee & Lee, 2015) 개인의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비행 행동 증가와의 연관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사회적인 위축이 사이버비행과의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더 많은 연구는 필요한 상황이다.

내면정서문제 외에는 직접적인 폭력피해 경험요인이 사이버비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프라인 폭력에서 사이버폭력으로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상의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도 많아진다고 보고했다(Kim, 2013; Kim & Yoon, 2012). 중학교 2학년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이 폭력비행이나 타인 괴롭힘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고(Kim, 2007),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청소년은 사이버 가해로 대응하려는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기도 했다(Lee & Jeong, 2014).

외국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나 피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Hinduja & Patchin, 2008). 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경험은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또는 폭력/가해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경험한 것과 상관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Beran & Li, 2007). 사이버 비행이 학교폭력과 연계하면서 공간 형태와는 상관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폭력이 연결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Jeong, 2012; Erdur-Baker, 2010) 서로의 관계성이 연관된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오프라인 비행피해 경험과 사이버비행 가해경험 또는 그 정반대의 경우에도 피해/가해 경험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피해자가 사이버비행가해를 하는 연관성은 기존연구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 대한 보복 행위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폭력을 가하거나 또는 감정을 표출하면서 제3자에게 사이버폭력을 행사하는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Ryu, 2013; Chisholm, 2006; Konig, *et. al.*, 2010).

3. 부모학대, 우울, 사회적 위축과 비행피해경험

부모학대와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과의 관계성들도 기존연구에서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이상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Lee, *et. al.*, 2007). 우울과의 관계성에서도 부모학대가 많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 Lee, 2012; Saltaris, 2002). Kim(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학대 정도가 심하고 학대 빈도가 많을수록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연구에서도 우울이나 정서결핍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roneman, *et. al.*, 2011).

부모학대는 사회적 위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적절한 양육과 학대를 통

해 자녀들은 더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였고(Kim, *et. al.*, 2003; Kim, 2000),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었다(Kwon & Kim, 2002). 비행피해와의 관계성에서도 부모학대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데,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oi, 2012; Lim, 2015; Lee & Yoon, 2005; Ki, 2011). 부모학대와 방임이 학교에서 아동들이 비행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Lereya, *et. al.*, 2013).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모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자료를 수집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의 4, 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1, 초4,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기의 전반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을 분석하기 위해 계속 종단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간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는 단기종단패널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요인들이 고등학교 청소년 사이버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교 자료를 분석했다.

고등학교 패널은 전국에서 78개의 학교에 재학 중인 2,351명을 대상으로 1-5차년도 조사가 수행되었고, 5차년도 조사 응답자는 2,091명으로 모두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원표본 유지율은 88.9.1%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각 요인관련연구와 기존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해서 아래의 <Figure 1>에 나타난 모형으로 표시되었다. 이는 부모학대가 우울감,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통해서 사이버 비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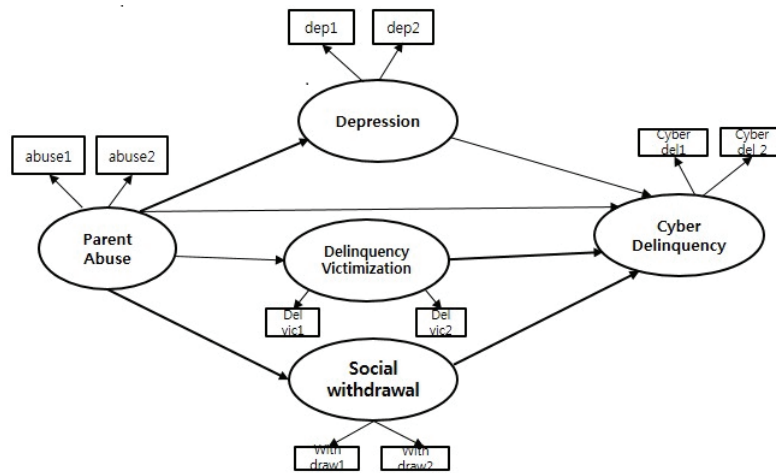


Figure 1. Cyber delinquency structural model

2. 측정변수

1) 부모학대방임 피해

부모학대방임의 척도는 Huh(2000), Kim(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들 중에서 일부를 참고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4개 문항을 활용했다. 부모학대는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등의 4문항으로 4점 리커트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역코딩 변환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학대가 심한 것을 나타냈다.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0.85로 나타났다.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베리맥스를 통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나누어 두 가지 범주로 척도로 구성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우울감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우울감 측정은 패널의 우울증 문항을 사용했는데, 이는 간이정신진단검사(Kim, et al.,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되어서 우울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총 10문항을 활용했다. 핵심 내용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걱정이 많다’, ‘울기를 잘한다’, ‘외롭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등이다. 본 연구의 우울

척도는 4점 척도로 역코딩해서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0.89로 나타났다.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베리맥스를 통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나누어 두 가지 범주로 척도로 구성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으로 아동이 위축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정서적 문제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위축과 관련된 문항들을 활용했다. 이는 Kim & Kim(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한 것으로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러움을 탄다’, ‘나서기 싫어한다’ 등 관련된 5개 문항이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역코딩 변환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7로 나타났다.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베리맥스를 통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나누어 두 가지 범주로 척도로 구성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비행피해 경험

비행피해경험은 패널의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것을 활용했는데 연간피해유무의 내용에서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 ‘심하게 맞기’,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의 Cronbach α 는 .5로 나타났다. 구조분석을 위해 베리맥스를 통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가지 범주로 분류, 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사이버비행

사이버비행은 패널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것을 활용했는데 사이버비행 연간 경험여부에서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터 거짓정보 올리기',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해킹하기,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 등에 대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조분석을 위해 베리맥스를 통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2가지 범주로 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분석방법

본 연구 분석에서는 부모학대,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SPSS 18을 활용하여 기본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한 후, 각 요인별 측정모형을 준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다음 분석단계에서는 서로의 구조적 관계성을 탐색하기 위해 AMO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이어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했고 적합도는 χ^2 , TLI, CFI, RMSEA 등의 지수를 사용했다. 모형 적합성의 판단기준은 χ^2 의 확률이 .05보다 더 클 때이고, TLI > .90, CFI > .90 일 때이다(Hong, 2000). 일반적으로는 RMSEA값이 0.10보다 크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Kim, 2014; Browne & Cudeck, 1993).

개별 간접효과인 매개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Sobel 검증법으로 분석했다(Sobel, 1982).

IV. 연구 결과

1. 주요변수 기술통계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결과는 남자가 51%, 여자는 49%로 구성되었고 가족 연간소득평균은 4,686만원이었다. 지역별 응답비율은 경기도가 1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남도과 광주시가 4%로 가장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다른 특징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Variables	Category	(%), M(won)
Gender	Female	51%
	Male	49%
Average Household Income		46,860,000
School Dropout	In school	87.3%
	Drop out school	1.7%

각 변수들 간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variables

Variables	M	SD
abuse 1	1.99	.73
abuse 2	1.57	.66
dep 1	1.81	.59
dep 2	1.94	.60
Del vic 1	.03	.22
Del vic 2	.01	.08
withdraw 1	2.24	.72
withdraw 2	2.16	.88
cyber del 1	.18	.45
cyber del 2	.05	.23

2. 고교 사이버비행 문제 모형의 적합성 검증결과

1) 측정모형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모형의 측정모형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TLI, CFI는 각각 .989, .994이고 RMSEA는 .02로

나타나 적합도 검증결과에 따라 측정모형이 대체로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했다.

2)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로는 부모학대, 우울감, 비행피해경험, 사회적위축과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적합도 결과가 아래 <Table 3>에 제시되어있다. 적합도는 TLI, CFI는 각각 .987, .992이고 RMSEA는 .03로 전체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구조의 결과에서 청소년의 사이버비행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성에 대한 결과는 아래 <Table 4>에 나타나 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생의 사이버비행에는 비행피해 경험, 사회적 위축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피해 경험이 많아질수록 청소년의 사이버비행 가해 행동이 많아지고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사이버비행 행동이 많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비행경험 변수가 사회적 위축보다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 시점에서는 비행을 당했던 경험이 사이버비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결과에서는 부모학대가 우울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학대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부모의 학대가 정서적인 요인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부모학대는 사회적 위축에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학대가 많을수록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데에 위축을 더 크게 가지게 되어서 사회적인 부적응을 야기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학대와 사이버비행과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 분석에서는, 부모학대가 매개변수인 사회적위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비행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모학대가 사이버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학대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관계성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서 종속변수까지 이르는 경로, 즉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매개 모형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AMOS의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나 AMOS의 한계점으로 다중매개모형에서는 전체간접효과에 대한

Table 3. High school cyber delinquency structural model fit

Structure	χ^2	df	TLI	CFI	RMSEA
Cyber Delinquency Structural Model	66.7***	27	.987	.992	.03

*** $p < .001$

Table 4. High school cyber delinquency structural model efficients

Path	b	S.E.
Depression ← Parent Abuse	.30***	.03
Delinquency Victimization ← Parent Abuse	.01	.01
Social Withdrawal ← Parent Abuse	.15***	.03
Cyber Delinquency ← Depression	-.01	.02
Cyber Delinquency ← Delinquency Victimization	1.14*	.49
Cyber Delinquency ← Social Withdrawal	.03*	.02
Cyber Delinquency ← Parent Abuse	-.01	.01

*** $p < .001$, * $p < .05$

bootstrapping만 제공되고 있다(Hong, 2009). 따라서 개별 간접효과인 매개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법을 사용했다(Sobel, 1982). 소벨검증에서는 결과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그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본다(Baron & Kenny, 1986).

분석결과, 소벨검증 계수가 1.87로 나타나 간접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학대에 서 사회위축을 통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모학대가 간접효과로 고등학교 청소년의 사이버비행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비행피해나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 우울, 비행피해경험,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들의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된 모형을 통해 결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피해경험과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사이버가해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비행이 증가하고 사회적 위축이 더 될수록 사이버비행에 더 가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성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피해경험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성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Kim, 2007; Kim, 2013; Hinduja, & Patchin, 2008). 이는 비행피해경험이 사이버비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봤던 연구들과 동일한 것(Antoniadou, 2016; Casas, *et. al.*, 2013)으로 유추된다. 즉, 청소년이 오프라인에서 비행피해자로서 피해경험을 당하게 되면, 이에 대한 영향으로 사이버상의 비행에 직접 가담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결과는 피해학생은 항

상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해자로서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Ryu, 2013; Tokunaga, 2010; Lereya, *et. al.*, 2013) 사이버비행에 대한 예방이나 개입을 할 때에는 비행피해 경험이 있었는가가 직접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난다(Li, 2007). 또한 피해/가해의 중복성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요인과의 관계성을 유추할 때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성 결과도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사이버비행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oh & Kim, 2014; Kim, 2015; Harman, *et. al.*, 2005). 이는 청소년의 사회부정적 감정과 긴장이 높아지면 사이버비행도 쉽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비슷하다(Lee & Jun, 2012; Menesini & Nocentini, 2009). 즉, 내면으로 위축이 되었다가 행동상으로는 사이버상에서 비행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긴장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연구결과처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사이버비행 가해를 더하게 되므로 청소년들이 사회적 위축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회관계성을 맺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이버비행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사이버비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해자의 행동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연구들이 기존연구에서는 피해자 연구보다 많이 부족하므로(Harman, *et. al.*, 2005) 이에 대해 더 심층적인 연구로써 보완해야할 것이다.

둘째,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우울과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학대가 많을수록 자녀의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Kim & Yoon, 2013; Lee & Lee, 2012; Saltaris, 2002). 가장 자녀가 믿고 따라야 할 부모가 가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한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우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oon, 2010). 특히 어느 정도 성숙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부모학대 경험이 우울 같은 개

인의 정서적인 문제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추가결과로 부모학대는 사회적 위축에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기존연구와 비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덜 할수록 자녀는 더 많은 사회적 위축 행동을 보이고 (Kim, *et. al.*, 2003; An, 2010) 학대를 당할 때는 더욱 위축되는 연구와 일치한다(Chung, 2008). 이처럼 부모학대가 사회적 위축 같은 자녀의 정서적인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볼 때,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개입부분에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 본다. 부모학대가 특히 청소년자녀의 심리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사이버비행에 부모학대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로 간접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매개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Jwa, 2015; Kim & Cha, 2014)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연구들과는 다른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 고등학생 연령 대상들의 영향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부모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어린연령과 어느 정도 성숙한 고등학교 연령대에서의 영향력의 차이도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부모학대가 정서적 면에 해를 주지만 사이버비행에는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학대와 사이버비행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Hebert, *et. al.*, 2016) 는 이 관계성을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주목할 부분은 부모학대와 사회적위축의 관계는 유의미하고 사회적위축과 사이버비행이 유의미한 관계인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학대는 관계성문제이므로 그 영향으로 사회적 관계에서는 위축이 되는 반면에 사이버비행은 학대보다 자신이 가진 정서적 문제로 인해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주변의 관계성이 좋지 않아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와 적용될

수 있다(Koh & Kim, 2015). 부모의 영향력이 익명성이 있고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비행에 대해 자녀의 어느 발달시기까지 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것도 들여다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부모학대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도 매개요인을 통해 간접영향만 있었던 연구들(Jeong & Lee, 2015; Kim & Cha, 2014)도 특정 요인이었기 때문에 간접영향이 나타난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이버비행은 다른 요인을 포함한 부모와의 관계성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비행의 발달궤적과 사이버비행의 발달 궤적이 서로 상이하므로 비행의 하위개념이 아닌 사이버비행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Jeong & Lee, 2015)처럼 부모학대의 관계성이 사이버비행에서는 비행과 다를 수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현 연구의 결과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의 사이버비행 가해행동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이버비행 가해행동에 대한 치료나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비행피해를 당했던 경우나 사회적위축이 높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관련요인들이 덜 발생하도록 통합적으로 개입한다면 사이버비행의 가해자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발생 예방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비행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큰 과제이나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 쌍방의 피해/가해를 예방하는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접근이 되리라고 본다. 적용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기존 비행피해예방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다(Rivers & Brackett, 2011). 또 사이버비행을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하여 집단으로 예방하는 접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Cho, 2015).

다음에는 사회적 위축이 감소하도록 개입하는 것도 사이버비행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위축이 많이 되어있는 청소년들을 분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등에서 다양한 심리검사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등의 설문을 통해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는 자존감이나 사회적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 개별상담이나 사회관계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둘째, 부모학대의 문제점은 특히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인 내면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문제성을 더 강조하여 자녀의 우울, 사회적 위축 등 정서적인 문제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학대의 영향으로 인한 청소년의 우울증과 사회적 위축을 예방하려면 학교 및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Choi & Shin, 2016). 이런 프로그램들에서(Lereya, et. al., 2013) 지지적인 개입과 자상하고 애착 있는 부모양육태도를 고양하여 가족관계를 보완하고 자녀들의 동료관계,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부모학대만 살펴보았는데 학교요인이나 주변의 다른 사회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가해서 연구한다면 더 심층적인 내용이 되리라고 본다. 또 연령층도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중단자료내의 아동이나 더 어린 연령층과 함께 비교해서 차이점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후속연구로서는 중단자료들이 더 다양하게 모이면 사이버비행의 변화와 다른 변수들의 변화 등을 살펴보아서 더 심층적인 중단분석이 이루어지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리하여 청소년기의 사이버비행 가해행동에 대한 예방과 그 행동의 치료를 위한 대안을 찾는 것에 더 다각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References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An, Gyeon Yuroo. 2010.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to School Adaptation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therapy*. 2(1): 99-108.

Antoniadou, N., C. M. Kokkinos, and A. Markos. 2016. Possible Common Correlates between Bullying and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Psicología Educativa*. 36: 1-12.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eran, T. and Q. Li.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and School Bullying. *Journal of Student Wellbeing*. 1: 15-33.

Casas, J., R. Del Rey, and R. Ortega-Ruiz. 2013. Bullying and Cyberbullying: Convergent and Divergent Predictor Variabl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 580-587.

Cassidy, W., C. Faucher, and M. Jackson. 2013. Cyberbullying among Youth: A Comprehensive Review of Current International Research and It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 to Policy and Practic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 1-38.

Chisholm, J. F. 2006. Cyberspace Violence against Girls and Adolescent Femal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1087(1): 74-89.

Cho, Youn Oh. 2015. The Study on the Responses to the Cyber-Bullying of Juveniles in Foreign Countries. *Institute of Police Science*. 10(3): 337-371.

Choi, Hyun Ju and Hae Jin Shin.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 Victimiz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7(2): 297-323.

Chosun-Ilbo. 2016.01.23. 3 out of 1 Adolescents, Cyber Violence Perpetrator and Victi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75.html. 2016. 1. 23.

Chung, Ick Joong. 2008.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Abuse to Peer Reje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4): 79-95.

Dehue, F., C. Bolman, T. Vollink, and M. Pouwelse. 2012.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Bullying in Relation to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ing. *Journal of Cyber Therapy and Rehabilitation*. 5: 25-34.

Erdur, Baker O. 2010. Cyberbullying and Its Correlation to

- Traditional Bullying, Gender and Frequent and Risky Usage of Internet-mediated Communication Tools. *New Media & Society*. 12: 109-125.
- Grigg, D. 2010. Cyber-Agression: Definition and Concept of Cyberbullying.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0(2): 143-156.
- Han, Jong Wook. 2001. An Empirical Study on the Social Bond Elements of Juvenile Delinquents in Cyber Spac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3: 357-384.
- Harman, J. P., C. E. Hansen, M. E. Cochran, and C. R. Lindsey. 2005. Liar, Liar: Internet Faking but not Frequency of Use Affects Social Skills, Self-esteem, Social Anxiety, and Aggress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The Impact of the Internet, Multimedia and Virtual Reality on Behavior and Society*. 8(1): 1-6.
- Hébert, M., J. M. Cénat, M. Blais, F. Lavoie, and M. Guerrier. 2016. Child Sexual Abuse, Bullying, Cyberbullying, and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High Schools Students: A Moderated Mediated Model. *Depression And Anxiety*. 33: 623-629.
- Hinduja, C. and J. W. Patchin.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 129-156.
- Hong, Se Hee. 2009. *Use of Bootstrapping in SEM. AMOS Day: SPSS Seminar Presentation*.
- Huh, Myo Yeon.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Ph.D. Dissertation. Ehwa Womans University.
- Jeon, Hei Sook, Jong Sul Chun, Ha Eun Chung, and Joo Yeon Lee. 2015.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Cyber Delinquency: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17(4): 191-216.
- Jeong, Han Ho. 2012.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of Cyber Violence in School Environment.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20: 205-241.
- Jeong, Kyu Hyoung, and Sang Hoon Lee. 2015. The Effect on Cyber Delinquency from Children Abuse from Par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17(4): 171-190.
- Jwa, Hyun Suk. 2015.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Child Abuse on Adolescents' Cyber Delinquency: Testing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Youth Culture Forum*. 43: 135-161.
- Ka, Sang Joon, Gang Min Kim, and Jae Hyoung Lim. 2013. The Effect of Common Use of SNS on Bullying and Cyberbullying of the Adolescent.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1(1): 159-208.
- Ki, Kwang Do.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hild Abuse and Adolescent Delinquency. *Korean Police Research*. 10(4): 93-114.
- Kim, Dong Ha. 2013. The Effect of Parental and Peer Relations on Adolescent Delinquency: Mediating Effect of Social Skill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0): 53-76.
- Kim, Hye Young. 2000. The Relation between the Mental Health and the Delinquency of Adolescent under Probation and the Influence of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0(1): 9-31.
- Kim, Jae Yop and Kwon Ho Choi. 2012. The Co-occurrence of Child Physical Abuse and Neglect. *Youth Welfare*. 14(3): 193-213.
- Kim, Jae Yop. 1998. Child Abuse in Korean Families Data from National Family Violence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 41-64.
- Kim, Ji Hye. 2013. Influenc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f Adolescents on Cyber and Real-world Delinquency Mediated by Types of Internet us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4: 31-59.
- Kim, Jong Gil. 2013. The Effect of Violence Victimization and Academic Stress on Cyberbullying of Youths. *Korea Criminal Psychology*. 9(1): 47-68.
- Kim, Kwang Il, Jae Hwan Kim, and Ho Taek Won. 1984.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eoul: Joongang Research Center.
- Kim, Kyung Eun and Hye Mi Yoon. 2012. Influences of Eco-systemic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Cyber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1): 213-238.
- Kim, Kyung Ho and Eun Jin Cha. 2014.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Cyber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1(2): 27-54.
- Kim, Mi Hae, Kyung Hee Ok, and Hee Young Chun. 2003. The

- Effects of Maternal Beliefs and Child Rearing Behavior on the Preschoolers' Aggressive and Social Withdrawal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4): 85-100.
- Kim, Pyeong Hwa and Hye Mee Yoon.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Callous-unemotional Trait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Aggression. *Child Welfare*. 41: 217-235.
- Kim, Sae Won.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ang Weon. 2007. The Different Causalities under Different Age Groups in Juvenile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18(2): 325-362.
- Kim, Sun Hee and Kyong Yeon Kim. 1998.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Korea Family Management Research*. 16(4): 155-166.
- Kim, Sung Eun, San Ha Park, and Jin Suk Kim. 2014. Juvenile Cyber-delinquency and Related Factor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2(7): 148-168.
- Koh, Eun Hee and Eun Jung Kim. 2014. Influence of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and Inattention on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Factors. *Korean Psychology Conference Report*. 248-249.
- Koh, Eun Hee and Eun Jung Kim. 2015. The Effects of Depression, Inattention, Internet Use and Teacher-student/Peer Relationships on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ts: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3): 1-26.
- Kong, J. and J. Lim. 2012.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n Cyber Delinquency in South Korean Adolescents: A Latent Growth Curve Model.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5): 908-913.
- Konig, A., M. Gollwitzer, and G. Steffgen. 2010. Cyberbullying as an Act of Revenge?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0(2): 210-224.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2008. *Cyber Rights Interference Guid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2014. *Korea Internet*.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Kroneman, L. M., et al. 2011. Contextual Risk Factors as Predictors of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Trajectories in Girls: The Moderating Effect of Callous Unemotional Featur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2): 167-175.
- Kwon, Seok Man and Ji Young Kim. 2002. Relationships of Mental Presentations on Self and Significant Others with Interperson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705-726.
- Laub, J. H. and R. J. Sampson. 1993. Turning Points in The Life Course: Why Change Matters to the Study of Crime. *Criminology*. 31: 301-326.
- Lee, Au Ri and Kang Yi Lee. 2012. The Effects of Parental Factors, Friend's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Addictive Mobile Phone Use of Children. *Children Education*. 21(2): 27-39.
- Lee, Eun Su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epression Symptom, Internet Addiction and Cyber-Delinquenc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Eun Young and Mi Sun Yoon. 2005. Child Stress and Behavior Based and Siblings and Mother Parenting Behavior. *Human Science Research*. 10: 137-164.
- Lee, Eung Taek and Eun Kyoung Lee. 2015.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Cyber-bullying Offensive Conduct and Testing Determinants of the Classe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2(2): 111-130.
- Lee, Joo Hyung and Soon Chul An.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yberbullying.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33-157.
- Lee, Ko Eun and Se Hoon Jeong. 2014. Predictors of Cyberbully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1(2): 129-162.
- Lee, Myoung Jin, Joo Yeon Cho, and Moon Kyoung Choi. 2007. Child Abuse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al Research*. 14: 9-42.
- Lee, Sang Gyun. 2007. Mediation Effects in Social Work Research. *Social Welfare Review*. 12: 19-36.
- Lee, Seok Young, Taek Ho Lee, and Yoon Sun Han.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and Cyber Delinquency. *Child Welfare*. 50: 27-53.
- Lee, Seung Hyun, Jee Hyun Kang, and Won Sang Lee. 2015. *A Study on the Types and Countermeasures of Youth Cyber*

- Violenc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Lee, Sung Shik and Shin Hyun Jun. 2012. Internet Usage, Strain, and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3(3): 293-318.
- Lereya, S. T., M. Samara, and D. Wolke. 2013. Parenting Behavior and The Risk of Becoming a Victim and a Bully/victim: A Meta-analysis Study. *Child Abuse & Neglect*. 37: 1091-1108.
- Li, Q. 2007. Bullying in The New Playground: Research into Cyberbullying and Cybervictimisation.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4): 435-454.
- Lim, Sun Ah. 2015.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Delinquency by the Mediation Role of Psychosocial Adaptation. *Child Welfare*. 50: 85-108.
- Menesini, E. and A. Nocentini. 2009. Cyberbullying Definition and Measurement: Some Cri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sychology*. 217(4): 230-232.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6. *Study of Internet Usage in Korea*.
- Moon, Yoon Jae. 2010. Psychopathy in Youth.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Nelson, M. 2003. *School Bullies Going High Tech*. <http://www.canoe.ca/NewsStand/LondonFreePress/News/2003/09/02/174030.html>
- Park, Ae Ly. 2014. The Impact of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Developmental Progress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 503-528.
- Rivers, S. E. and M. A. Brackett. 2011. Achieving Standards in the English Language Arts (and more) Using the Ruler Approach to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Reading and Writing Quarterly*. 27: 75-100.
- Ryu, Sung Jin. 2013. Adolescents Cyber Aggression and Offline Aggression Research.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5): 297-324.
- Saltaris, C. 2002. Psychopathy in Juvenile Offenders: Can Temperament and Attachment Be Considered as Robust Developmental Precurso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729-752.
- Smith, P. K., J. Mahdavi, M. Carvalho, S. Fisher, S. Russell, and N. Tippett.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76-385.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Leinhardt, S.(ed.). *Sociological Methodology*.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Tokunaga, R. S. 2010. Following You Home from School: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of Research 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277-287.
- Van den Eijnden, R., R. Spijkerman, A. Vermulst, T. Van Rooij, and R. Engels. 2010. Compulsive Internet Use among Adolescents: Bidirectional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77-89.
- Wang, J., R. J. Iannotti, and T. R. Nansel. 2010. School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Physical, Verbal, Relational, and Cybe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4): 368-375.
- Willard, N. 2006. *Electronic Bullying and Cyber 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Cruelty, Threats, and Distress*. London: Center for Safe and Responsible Internet Use.
- Wong, Y. C. 2010. Cyber-Parenting: Internet Benefits, Risks and Parenting Issues. *Journal of Technology in Human Services*. 28(4): 252-273.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가상준, 김강민, 임재형. 2013. SNS 사용문화가 청소년의 학교 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11(1): 159-208.
- 고은희, 김은정. 2014.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 주의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248-249.
- 고은희, 김은정. 2015. 우울, 주의집중의 어려움, 인터넷 사용빈도 및 교사/친구관계가 청소년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3): 1-26.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기광도. 2011. 가정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한국경찰연구*. 10(4): 93-114.
- 김경은, 윤혜미.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생태체

- 계변인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1): 213-238.
- 김경호, 차은진. 20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중등생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학교 급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27-54.
- 김동하. 2013.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관계와 비행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기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53-76.
- 김미혜, 옥경희, 천희영. 2003. 어머니의 신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4): 85-100.
- 김상원. 2007. 아동과 청소년 비행의 원인비교: 허쉬의 사회유 대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2): 325-362.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성은, 박산하, 김진석. 2014. 청소년 사이버 일탈과 관련변인의 탐색: 다층포아송모형의 적용. 교육학연구. 72(7): 148-168.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최권호. 2012. 중북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4(3): 193-213.
- 김재엽. 1998. 한국가정의 미성년 자녀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 41-64.
- 김종길. 2013.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9(1): 47-68.
- 김지혜. 2013.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31-59.
- 김평화, 윤혜미. 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과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1: 217-235.
- 김혜영. 2000.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 한국아동복지학. 10(1): 9-31.
- 류성진. 2013.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과 오프라인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7(5): 297-324.
- 문윤재. 2010. 청소년의 정신병질: 하위유형은 존재하는가?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 조사.
- 박애리. 2014. 부모간의 폭력노출 및 학대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0): 503-528.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 안귀여루. 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이들의 학교 적응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1): 99-108.
- 이고은, 정세훈. 2014.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31(2): 129-162.
- 이명진, 조주연, 최문경. 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제7회 『사회연구 학술상』 최우수상(삼복학술상) 수상논문. 사회연구. 14: 9-42.
- 이상균. 2007. 사회복지연구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2: 19-36.
- 이석영, 이택호, 한운선. 2015. 청소년의 폭력비행 피해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27-53.
- 이성식, 전신현. 2012. 인터넷사용, 일상긴장, 비행의 관계: 청소년패널 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23(3): 293-318.
-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총서 15-AA-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어리, 이강이.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21(2): 27-39.
- 이은선. 2006. 청소년기 우울증상과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비행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윤미선. 2005. 형제유무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 및 대처행동. 인문과학연구. 10: 137-164.
- 이용택, 이은경. 2015.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한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변화유형 탐색과 특성. 미래청소년학회지. 12(2): 111-130.
- 이주형, 안순철.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 미국의 법적 대응의 특징과 법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33-157.
- 임선아. 2015. 아동학대 피해가 심리사회적 적응을 매개하여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소득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85-108.
- 정규형, 이상훈. 2015.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대가 사이버

-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171-190.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 학회지. 29(4): 79-95.
- 정한호. 2012.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20: 205-241.
- 조선일보. 2016년 1월 23일자. 청소년 3명 중 1명, 사이버폭력 피해자이자 가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75.html.
- 조운호. 2015.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대응방안 및 개입 프로그램 고찰. 경찰학논총. 10(3): 337-371.
- 좌현숙. 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수준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 문화포럼. 43: 135-161.
- 좌현숙, 신혜진.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감을 매개로 비행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297-323.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중욱. 2001. 청소년 사이버비행자의 사회유대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 357-384.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Bootstrapping방법의 다양한 적용. AMOS Day: SPSS Seminar자료. http://www.seehong.com/data/Bootstrap_Hong.pdf.

Received: May 25, 2017 / Revised: Aug. 2, 2017 / Accepted: Aug. 8, 2017

고등학교 청소년의 부모학대, 우울감,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성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 그리고 사이버 비행간 관계를 알아보고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사이버 비행 문제를 예방하고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여 수집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다. 총 2,091명의 전국 남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관계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서는 첫째, 비행피해경험,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사이버가해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피해경험이 더 많고 사회적 위축이 더 될수록 사이버가해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대가 사이버비행에 주는 간접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행하는 사이버가해 비행에 대한 예방이나 개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부모학대, 사이버비행, 우울, 사회적위축, 청소년

Profiles **Sun Ah Kim** : She received her B.A. from Yonsei University, Korea in 1993, and MSW from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SA in 1995. Received her Ph.D. from University of Washington, USA in 2000. Currently,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oongsil Cyber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01. Her interest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adolescent and children at risk, social welfare practice methods, school social welfare, multi-culture welfare and e-learning subjects(sunkim@mail.kcu.ac).